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I*

- 주거생활양식 유형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Life Style of Familie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I:
with special reference to patterning of Housing Life style*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주거학과

강사 이연복

교수 홍형옥

Dept. of Housing, Family & Child Studies, KyungHee Univ.

Instructor : Yeon Bok Lee

Professor : Hyung Ock Ho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과 절차

III. 결과해석과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a mode of housing life style that meet the demands of families living in big cities, and th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better housing life style pattern by considering metropolitan residents' choice of housing and basic concepts of their behavioral patter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Value orientation of family life was divided into value orientation of family and value orientation of housing. Value orientation of family was constituted of four factors such as 'harmony', 'leisure and hobbies', 'individual development and its support', 'education'. Value orientation of housing is constituted of three factors such as 'physical characteristics of house', 'environmental condition', 'socio-economic conditions of housing'. The comprehensive life values were constituted of six factors such as 'the importance of communal family', 'the importance of housing decoration and housing life benefits',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housing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familial harmony', 'the importance of privacy', 'the importance of convenience and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ree factors, were found to be five types of value orientation of family life which were 'pursue healthy of family', 'comfort of

* 1999년 2월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양식 유형에 관한 연구, -유형화와 주거조절 행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의 일부임.

- family', 'clean environment', 'convenient environment', and 'harmonious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Variables influencing the value orientation of family life were property and price of housing.
2. Consumption propensity when buying house, furniture and durables were constituted of four factors which were propensity to 'beauty', 'fashion', 'tradition and symbol', and 'pragmatic use'. Based on these factors, there were found to be four types of consumption propensity when buying house, furniture and durables which were 'fashion', 'tradition and symbol', 'beauty', and 'pragmatic use'. Variables influencing spending habits were found to be objective social class (SES), types of residence, wife's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ice of housing.
 3. Propensity to using space were constituted of three factors which were 'convenience', 'politeness and social grace', and 'housekeeping'. Based on these factors, there were found to be three types of propensity to using space which were 'individuality', 'convenience', and 'politeness and housekeeping'. Variables influencing propensity to use of space were found to be objective social class (SES), wife's educational background, types of homeownership and price of housing.
 4.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were found to be six patterns of housing life style: 1) family that seeks formalist life, 2) family that seeks harmonious life, 3) family that seeks active healthy life, 4) family that combine various factors, 5) family that seeks convenience, 6) family that stresses environment.

I. 서론

주거는 삶의 보금자리이며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개인의 인격형성과 가족단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주거계획은 그 속에 들어가 살 거주자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고안되어야 한다. 거주자 가족의 주거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는 좀더 편리하고 안락하며, 쾌적하고 개성있는 주거는 주택공급업체들이 확일적이고 시공자 편의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별가족의 변화하는 주거생활양식에 대응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주자 위주의 주택계획을 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주거생활양식 연구에 있어서 종래에 행해지던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별가족의 가치·태도·행위를 반영하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가정생활가치관과 주택·가구와 내구재 구입과 유지·관리, 가족의 공간사용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도구와 개념으로서의 주거생활양식이 연구·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거생활양식이 유형화된다면, 이 유형은 가족이 주거를 선택하고 유지·관리 하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주며 집단 구성원이 동조하고 따르는 규범인 동시에 집단을 대표

하는 상징 개념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도구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과제는 주거생활양식을 하나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가치관, 내구재 소비태도, 공간사용행위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도시가족의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과 절차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가정생활가치관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2>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3> 공간사용성향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4> 주거생활양식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주거생활양식의 하위영역 중 가정생활가치관을 유형화하기 위한 척도로서 가족가치관 척도 15문항의 Cronbach α 값이 .924였고, 주거가치관 척도 27문항의 Cronbach α 값이 .915였으며, 가정생활가치관 유형화 척도로서의 총 45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919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을 유형화하기 위한 척도는 총 22문항으로서 Cronbach α 값이 .728 이었다. 공간사용성향을 유형화하기 위한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Cronbach α 값이 .711로서 신뢰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3. 조사대상과 자료처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인 가족을 제외한 전 계층의 가족으로서, 응답은 가족 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 1인이 대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 거주자와 신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집은 가족생활주기 중 가족형성기, 자녀출산·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결혼기, 노년기를 할당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는 1997년 11월 10일부터 1998년 3월 21일까지 측정도구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1998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000부를 배포하여 850부가 회수되었는데, 그중 대답이 불충실한 것을 제외한 794부를 분석하였다 (회수율은 배포부수의 85.0%, 분석비율은 회수부수의 93.4%).

수집된 자료는 SPSS 7.5 for Windows Program에 의해 처리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집락분석, 일원분산분석과 셰페(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해석과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부부의

연령, 부부의 직업, 부부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자산, 객관적 사회계층(남편의 직업, 교육수준과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지수화), 계층귀속의식에 의한 주관적 사회계층, 가족생활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49.9%로 가장 많았고, 부인도 40대가 44.2%로서 가장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47.9%로 가장 많았다. 부인의 경우는 가정주부가 64.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취업한 주부 또한 35.1%(단순노동·자영업이 15.7%, 사무·관리직이 16.7%, 전문직이 2.7%)를 차지하여 주부의 취업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9.5%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부인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247만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총자산은 1억 3천 2백만원이며, 남편의 직업, 교육수준, 가족의 월평균 소득으로 지수화한 객관적 사회계층은 중류층이 66.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족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사회계층도 중류층이 69.0%로 가장 많았다.

가족생활주기는 자녀교육기인 가족이 55.0%로 가장 많았다.

주거상태를 보면 <표 2>,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고, 주택가격은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37.4%, 아파트는 38.2%, 연립주택·빌라 및 기타는 24.4%로 나타나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을 기준으로 하여 7평 차이의 급간을 두어 살펴보았는데 25평 이상에서 32평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다. 주택규모의 평균은 25.9평으로 나타나 국민주택규모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거주지역은 강남과 신도시가 43.2%, 강북지역이 56.8%로 나타났으며,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역과 가족이 살고 싶어하는 곳의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는 63.9%,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36.1%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여러 가지

〈표 1〉 조사대상지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변 수	남 편		부 인	
연 령	29세이하	39(5.7)	29세이하	89(12.9)
	30-39세	173(25.3)	30-39세	230(33.2)
	40-49세	342(49.9)	40-49세	306(44.2)
	50-59세	109(15.9)	50-59세	47(6.8)
	60-69세	17(2.5)	60-69세	14(2.0)
	70-79세	3(0.4)	70-79세	4(0.6)
	80세 이상	2(0.3)	80세 이상	2(0.3)
	계	685(100.0)	계	692(100.0)
직 업	단순노동·자영업	293(41.8)	가정주부	462(64.9)
	사무직	203(29.0)	단순노동·자영업	112(15.7)
	관리직	133(18.9)	사무직	105(14.7)
	전문직	72(10.3)	관리직	14(2.0)
	전문직	72(10.3)	전문직	9(2.7)
계	701(100.0)	계	721(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230(32.3)	고졸이하	356(49.4)
	전문대·초급대졸	59(8.2)	전문대·초급대졸	72(10.0)
	대졸이상	424(59.9)	대졸이상	29(40.6)
	계	713(100.0)	계	72(100.0)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29(4.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9(26.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84(26.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43(20.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9(10.0)	
	500만원 이상		84(12.2)	
	계		688(100.0)	
자 산	5천만원미만		79(13.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26(21.5)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126(21.5)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8(15.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39(23.7)	
	4억원 이상		28(4.8)	
	계		586(100.0)	
개관적사회 계층	상류층		169(26.7)	
	중류층		423(66.7)	
	하류층		42(6.6)	
	계		791(100.0)	
주관적사회 계층	상류층(중산층보다 더 낮다)		56(7.1)	
	중류층(중산층과 비슷하다)		546(69.1)	
	하류층(중산층보다 못하다)		189(23.9)	
	계		791(100.0)	
가족생활주기	가족 형성기		92(11.6)	
	출산 양육기		86(10.8)	
	자녀 교육기		437(55.0)	
	자녀 성년기		121(15.2)	
	자녀 결혼기		39(4.8)	
	노년기		19(2.4)	
	계		791(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및 주거생활구조 특성

주택 소유 형태		주택 가격	
자가	492(62.4)	5천만원 미만	130(19.4)
전세	265(33.6)	5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136(20.3)
월세	20(2.5)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54(8.1)
기타	16(1.5)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84(12.6)
		1억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75(11.2)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97(14.5)
		3억원 이상	93(13.9)
계	789(100.0)	계	669(100.0)
주거 유형		주택 규모	
단독주택	295(37.4)	18평 미만	126(17.2)
아파트	301(38.2)	18평 이상-25평 미만	143(19.5)
연립주택·빌라	154(9.6)	25평 이상-32평 미만	178(24.3)
기타	38(4.8)	32평 이상-39평 미만	133(18.1)
		39평 이상-47평 미만	53(7.2)
		47평 이상	101(13.8)
계	788(100.0)	계	734(100.0)
거주 지역		살고 싶은 거주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의 일치 정도	
강남과 신도시	340(43.2)	일 치	431(63.9)
강북	447(56.8)	불일치	244(36.1)
계	787(100.0)	계	675(100.0)
주거 계층		주거 생활주기	
상	149(33.4)	주거탐색기	81(10.2)
중상	170(38.1)	주거변동기	116(14.6)
중하	127(28.5)	주거규모 확대기	192(24.2)
		주거의 질향상기	191(24.1)
		주거 정착안정기	175(22.0)
		주거 축소기	18(2.3)
		주거 의존기	21(2.6)
계	446(100.0)	계	794(100.0)

여건이 허락될 경우, 현재 살고 싶은 곳을 조사해 본 결과 신도시가 1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강남구로 16.1%를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가 33.2%, 강남구가 30.0%, 전원주택이 12.0%로 나타났다.

주거생활구조 특성은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주택의 질, 거주지역, 사용방수를 가지고 산출한 결과, 주거계층이 상에 해당하는 집단은 33.4%, 중상에 해당하는 집단은 38.1%, 중하에 해당하는 집단은 28.5%로 나타나 중상에 해당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

다. 주거생활주기는 주거탐색·변동기가 24.8%, 주거규모확대기가 24.2%, 주거의 질향상기가 24.1%, 주거정착안정기가 22.0%, 주거축소·의존기가 4.9%로 나타났다.

2. 주거생활양식 하위영역의 유형화

1) 가정생활가치관 유형화 <연구문제 1>

(1) 가정생활가치관 요인의 구성

가족가치관의 요인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에

의하여 4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 1요인을 '화목'이라 명명하였으며 총분산의 25.9%를 설명하고, 요인 2는 '여가 및 취미'라 명명하였으며, 18.7%를 설명하고, 요인 3은 '개인발달 및 지지'라 명명하였는데 7.6%를 설명하고, 요인 4는 '교육'이라 명명하였는데 5.2%를 설명하여 이 4요인이 총분산의 57.4%를 설명한다.

주거가치관 요인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에 의하여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라 명명하였는데 24.3%를 설명하고, 요인 2는 '주변환경'이라 명명하였는데 12.6%를 설명하며, 요인 3은 '주택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라 명명하였는데 6.2%를 설명하므로써 이들 3요인이 총분산의 43.1%를 설명한다.

가정생활가치관의 유형화를 위하여 가족가치관 문항과 주거가치관 문항을 혼합하여 요인분석 결과, 가정생활가치관은 '가족공동체 중시(26.4%)',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6.1%)',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5.5%)', '가족의 화목 중시(4.2%)', '개인생활 중시(3.5%)',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3.1%)'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이 총분산의 48.9%를 설명한다.

(2) 가정생활가치관 유형

여섯 개의 가정생활가치관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집락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

류된 5개 집단별로 가정생활가치관 요인의 차이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쉐페(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가정생활가치관의 5개 집단별로 하위요인이 모두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다섯 개 유형 집단별로 가정생활가치관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각 요인의 특성을 검토한 후 각 집단을 명명하기 위해 가정생활가치관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가정생활가치관 하위요인 표준화점수의 집단간 순위를 파악(표 3)하였는데, 그 이유는 집락분석에서는 각 집락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집락분석의 통계적 유의도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집락내의 대상들과 그 대상들의 속성을 잘 검토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집락화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속성들의 평균값이나 각 집락의 중심치(centroid)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집락의 특성을 찾거나 집락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서정희, 1996: 617). 이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표준화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집락 결정을 하였다.

집단 I은 여섯 요인에서 표준화점수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의 점수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는 '가족의 화목 중시' 요인과 '개인생활

〈표 3〉 가정생활가치관 유형 집단별 표준화점수 및 집단간 점수순위

요인	유형집단	집단 I	집단 II	집단 III	집단 IV	집단 V
◆가족공동체 중시		.213 2	.152 3	-.744 4	-1.122 5	1.152 1
◆집치장 및 주거 생활 편의 중시		.132 3	.268 1	.232 2	-2.592 5	-.556 4
◆안전 및 주거 환경 중시		.246 3	.328 2	-.697 4	.568 1	-3.202 5
◆가족의 화목 중시		.301 1	.243 3	-.784 5	.288 2	-.251 5
◆개인생활 중시		.248 1	-.159 3	-.381 5	-.279 4	.069 2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439 2	-1.012 5	.339 3	.457 1	.159 4

중시' 요인에서 1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과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에서는 2위를 나타내며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 요인과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요인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함께 대화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가족원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가족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며, 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해결하고 애정 표현도 자유롭게 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가족을 추구한다. 또한 가족원 개성을 중시하여 서로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물질적·정신적인 지지가 되어주고,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가 공평하게 충족되도록 노력하며, 주거선택에 있어서는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인접성과 도심과의 교통을 중시하고,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어 자연친화를 지향한다. 즉, 가족생활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유형의 명칭을 '건강가정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II의 표준화 점수는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과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 요인,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요인, '가족의 화목 중시' 요인에서 양의 값을 가진다. 반면, '개인생활 중시' 요인과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에서는 음의 값을 가진다. 표준화된 점수의 분포는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가 .328로 가장 높으며,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 '가족의 화목 중시',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점수의 집단간 순위에서는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 요인에서 1위를 나타냈고,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요인에서는 2위를 나타냈다. 이 집단은 개성있는 건물외관의 색채와 형태, 집안의 디자인과 색채, 편리한 내부구조, 가족에 맞는 주택의 규모와 방의 수 등의 집치장과 주거생활 편의 요인을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며, 재해나 범죄로부터 안전과 주변환경의 공기나 소음, 청결 및 위생상태를 중시한다. 즉, 가정생활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의 명칭을 '인락가정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III은 가정생활가치관의 여섯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 요인과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에서만 표준화점수가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의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는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 요인은 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편리성 및 자연친화 지향' 요인에서는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정생활에 있어서 개성있는 건물외관의 색채와 형태, 집안의 디자인과 색채, 편리한 내부구조와 가족에 맞는 주택의 규모와 방의 수 등의 집치장과 주거생활 편의 요인을 다른 요인보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며,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빈번한 이용으로 인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이나 도심과의 교통을 우선시하고 자연환경과 주변의 녹지공간을 이용하는 형으로서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반면, 집치장과 주거생활의 편의와 편리성 및 자연친화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이 집단의 명칭을 '쾌적환경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IV는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요인과 '가족의 화목 중시' 그리고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의 표준화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요인의 점수는 .568로 가장 높고, '편리성 및 자연친화 지향' 요인의 점수도 .457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의 화목 중시' 요인의 점수는 .288로 가장 낮았다. 표준화점수의 집단간 순위에서는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요인과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은 여섯집단 중 1위를 나타내며, '가족의 화목 중시' 요인은 여섯 집단 중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집단은 자녀의 교육환경과 범죄나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중시하며, 주변환경의 청결과 위생상태 그리고 공공·편의시설과 직장이나 도심과의 교통 편리성과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편리하고 유익한 주거환경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 집단을 '편익환경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V는 '가족공동체 지향' 요인과 '개인생활 중시' 요인, 그리고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의 표준화 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의 점수가 1.152로 가장 높고,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은 .159, ‘개인생활 중시’ 요인은 .069로 아주 낮았다. 또한 표준화점수의 집단간 순위에서는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의 경우는 여섯 집단 중 1위를 나타내며, ‘개인생활 중시’ 요인은 여섯 집단 중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집단은 가족생활의 가치적 측면에서는 가족원이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며, 가족 전통의 교훈이 있어야 하고, 양가부모나 친척과의 유대를 중요시 한다. 또한 가족은 비슷한 관심사와 취미를 가지고 많은 여가나 문화생활을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며, 가족의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도 가족원에게 사회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자녀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을 가지고 질서와 규율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개인생활도 중시하므로 이 집단을 ‘단란가정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2)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유형화 〈연구문제 2〉

(1)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요인의 구성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의 요인은 베리맥스 방식에 의하여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총분산의 21.6%를 설명해 줌으로써, 4개의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요인 1을 ‘심미 지향’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유행 지향’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전통 및 상징 지향’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4는 ‘실용 지향’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들 4개 요인이 총분산의 47.6%를 설명한다.

(2)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유형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집단의 명명은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요인으로 추출된 네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집락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수를 결정 한 후, 분류된 4개 집단별로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쉐페(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요인으로 추출된 네 하위요인에서 모두 $P<.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형화된 4개 집단들을 구성하는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각 요인의 특성을 비교하여 각 집단을 명명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집단별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와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의 요인 표준화점수의 순위로 파악하였다(표 4).

집단 I에서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 성향의 네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점수가 ‘실용 지향’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유행 지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심미 지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는 ‘유행 지향’ 요인이 1위를 보이고 있고 ‘심미 지향’ 요인과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에서는 2위를 나타내며 ‘실용 지향’ 요인에서는 3위를 나타냈다. 즉, 가족의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의 결정 기준에 있어서 ‘유행 지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집단의 명칭을 유행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I에서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 성향의 네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점수가 ‘전통 및 상징 지향’과 ‘실용 지향’ 요인에서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심미 지향’과 ‘유행 지향’ 요인에서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

〈표 4〉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유형 집단별 표준화점수 및 집단간 점수순위

요인	집단			
	집단 I	집단 II	집단 III	집단 IV
◆심미 지향	.120 2	-1.098 4	.591 1	.260 2
◆유행 지향	.618 1	-.102 2	-.140 3	-.930 4
◆전통 및 상징지향	.308 2	.508 1	.263 3	-1.251 4
◆실용 지향	-.372 3	.299 2	-.322 3	.533 1

났고 다음으로는 '실용 지향'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도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이 1위를 보이고 있으며 '유행 지향' 요인과 '실용 지향' 요인에서는 2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의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의 결정 기준에 있어서 '전통 및 상징 지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명칭을 전통 및 상징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II에서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 성향의 네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점수가 '심미 지향' 요인과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에서만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에서는 '심미 지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도 '심미 지향' 요인이 1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3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의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의 결정 기준에 있어서 '심미 지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명칭을 심미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V에서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 성향의 네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점수가 '실용 지향' 요인과 '심미 지향' 요인에서만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에서는 '실용 지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 '실용 지향' 요인이 1위를 보이고 있다. 가족의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의 결정 기준에 있어서 '실용 지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명칭을 실용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공간사용성향 유형화<연구문제 3>

(1) 공간사용성향 요인의 구성

공간사용성향 요인의 구성은 공간사용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 1은 '생활편이 중심'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2는 '격식 및 접객 중심'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3은 '가사중심'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들 3요인이 총분산의 31.5%를 설명한다.

(2) 공간사용성향 유형

공간사용성향의 세 요인을 기준으로 집락분석을 하여 유형화를 하였다. 유형화한 후 그 결과가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된 공간사용성향 요인 점수와 쉐페(Scheffe)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각 집단의 명칭을 정하고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요인의 특성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공간사용성향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의 요인별 표준화점수 순위를 파악하였다(표 5).

집단 I에서 공간사용성향의 세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인 순위에서는 '격식 및 접객 중심' 요인이 2위를 나타냈으나 '생활편이 중심' 요인과 '가사 중심' 요인에서는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집단은 공간사용성향 기준에 있어서 생활의 편이를 꾀한다거나 격식 및 접객행위와 가사 생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유형의 명칭을 개성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I에서 공간사용성향의 세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격식 및 접객 중심' 요인에서만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생활편이 중심'와 '가사 중심' 요인에서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점수에서는 '생활편이 중심'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사 중심'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도 '생활편이 중심' 요인이 1위를 보이고 있으며 '가사 중심' 요인에서는 2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의 공간사용의 결정 기준에 있어서는 생활을 편리하게

<표 5> 공간사용성향 유형 집단별 표준화점수 및 집단간 점수순위

요인 \ 집단	집단 I	집단 II	집단 III
• 생활편이 중심	-.377 3	.785 1	-.032 2
• 격식 및 접객 중심	-.130 2	-.703 3	.831 1
• 가사 중심	-.894 3	.566 2	.596 1

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이 집단의 명칭을 편리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III에서 공간사용성향의 세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격식 및 접객 중심' 요인과 '가사 중심' 요인에서만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편이 중심' 요인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점수에서는 '격식 및 접객 중심'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가사 중심' 요인이 두번째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순위에서는 '격식 및 접객 중심' 요인과 '가사 중심' 요인이 1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의 공간 사용 성향에 있어서 격식 및 접객 행위와 가사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집단의 명칭을 격식 및 가사활동 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주거생활양식의 유형화 <연구문제 4>

주거생활양식 요인으로 추출된 13개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집락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수를 결정한 후, 분류된 6개 유형 집단별로 주거생활양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셰페(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주거생활양식 13개의 하위요인 중 가정생활가치관의 6개 요인은 모두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형화된 6개 집단들을 구성하는 주거생활양식 각 차원의 요인별 특성을 비교하여 각 집단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집단별 주거생활양식 요인의 표준화된 요인점수와 일원분산분석 및 셰페(Scheffé) 검증 결과와 공간사용성향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의 요인 표준화 점수의 순위로 파악하였다(표 6).

집단 I의 주거생활양식 유형의 13개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격식 및 접객 중심' 요인의 점수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행 지향' 요인이 .679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심미 지향' 요인이 .534, '집치장 및 주거생활편익 중시' 요인이 .3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상대적 순위에서도 이들 네 요인이 1위로 나타났다. 그 외

이 집단은 '생활편이 중심'과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집치장 및 주거생활편익 중시' 요인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과 '가사 중심' 요인은 표준화된 점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격식 및 접객을 중요시하고 유행과 심미를 지향하며 집치장 및 주거생활편익 요인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가족의 가치나 심리적인 면보다는 외형적인 면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사료되므로 이 집단을 형식적 생활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II의 주거생활양식 유형의 13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의 화목 중시' 요인의 점수가 .3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사 중심' 요인과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집치장 및 주거생활편익 중시'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의 표준화 점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상대적 순위에서는 '가족의 화목 중시' 요인이 1위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시하는 집단이므로 이 집단을 가족화목 생활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III의 주거생활양식 유형의 13개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실용 지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의 점수가 양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의 점수가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상대적 순위에는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과 '개인생활 중시'와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이 1위로 나타났으며 그외 '전통 및 상징 지향', '유행 지향'과 '격식 및 접객 중심' 요인이 2위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가정생활가치관,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과 공간사용성향의 3개 하위영역의 13개 요인에서 '실용 추구' 요인만을 제외한 12개 요인들이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어 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을 적극적 건강생활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IV의 주거생활양식 유형의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과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요인과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와 '가사 중심' 그리고 '가족의 화목 중시' 요인만이 양의 값을 가지며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의 점수가 .6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표 6〉 주거생활양식 유형 집단별 표준화점수 및 집단간 점수순위

요인	집단	집단 I	집단 II	집단 III	집단 IV	집단 V	집단 VI
가정생활가치관	가족공동체 중시	-152 3	-369 5	.721 1	-1.407 6	-234 4	.180 2
	집치장 및 주거생활 편의 중시	.356 1	.101 2	.081 3	-2.159 6	-.676 5	-.131 4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331 2	.106 5	.194 4	.312 3	-2.165 6	.696 1
	가족의 화목 중시	.038 4	.327 1	.130 3	.175 2	-.641 6	-.569 5
	개인생활 중시	.133 2	-.247 6	.327 1	-.060 4	-.186 5	.105 3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	.078 4	.112 3	.424 1	.414 2	-.360 5	-.894 6
소비성향	심미 지향	.534 1	-.391 4	.336 2	-1.111 6	-.575 5	.295 3
	유행 지향	.679 1	.026 3	.193 2	-.419 5	-.301 4	-.752 6
	전통 및 상징 지향	-.104 5	-.098 3	.461 2	.623 1	-.133 4	-.508 6
	실용 지향	.255 3	-.392 6	-.154 5	-.098 4	.524 1	.292 2
공간성향	생활편이 중심	.532 2	-.119 4	.276 3	-.216 5	.582 1	-.338 6
	격식 및 접객 중심	.734 1	-.217 3	.583 2	-.442 4	-.516 5	-.529 6
	가사 중심	-.711 6	.133 3	.557 1	.187 2	-.163 4	-.607 5

상대적 순위에서는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이 1위이며 그 외의 요인들이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집단은 '전통 및 상징 지향' 요인이 집단간 순위에서 1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도 높은 편이고 '가족의 화목 중시'와 '가사 중심' 요인도 집단간 순위에서 2위를 나타내어 주거생활양식의 하위영역인 가정생활가치관,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과 공간사용성향의 요인들이 아주 두드러지는 요인은 없이 모두 나타나므로 이 집단을 미온적 혼합생활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V의 주거생활양식 유형의 13개 하위요인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생활편이 중심' 요인과 '실용 지향' 요인만이 양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중에서 '생활편이 중심' 요인의 점수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용 지향' 요인은 .524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생활편이 중심'과 '실용 지향'을 주거생활양식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을 편리추구 생활형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VI의 주거생활양식 유형의 하위요인들의 표준화된 점수를 살펴보면,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실용 지향', '심미 지향', '가족공동체 중시' 요인과 '개인생활 중시' 요인은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그외의 요인들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상대적 순위에는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요인이 1위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은 안전 및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주거환경중시 생활형이라 명명하였다.

IV. 결 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주택부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채택되었던 집합주택은 공급에만 주력한 나머지 거주지역별로 주거유형이 분리되는 현상을 낳았다. 또, 신규주택은 거의 집합주택으로 공급되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게 됨으로써 거주자의 요구와는 괴리된 주거유형과 주택평면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거주자는 주거생활양식에 맞는 집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지어진 주택에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즉, 가치관이 주거생활양식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유형이나 거주지역 등이 오히려 주거생활양식을 선도하는 경향이 생겨남으로써 그동안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나 비판을 한 연구결과(김진애, 1994; 백혜선 외, 1998; 이영주·이영호, 1998; 홍형욱, 1998)가 많이 있었다.

본 연구는 주거생활양식이 객관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거주자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주거선택이나 행동 예측에 있어서 유용한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거생활양식의 하위영역을 탐색하고 그에 따라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예측하는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가치관은 가족가치관과 주거가치관으로 구성하였는바, 가족가치관은 '화목', '여가 및 취미', '개인발달 및 지지', '교육'의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주거가치관은 '주택의 물리적 특성', '주변환경', '주택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조합한 가정생활가치관 요인은 '가족공동체 중시', '집치장 및 주거생활편의 중시', '안전 및 주거환경 중시', '가족의 화목 중시', '개인생활 중시', '편리성 및 자연친화 중시'의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를 유형화한 가정생활가치관은 '건강

가정 추구형(49.2%)', '안락가정 추구형(25.1%)', '쾌적환경 추구형(17.2%)', '편익환경 추구형(5.0%)', '단란가정 추구형(3.5%)'의 5개로 유형화되었다.

2.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은 '심미 지향', '유행 지향', '전통 및 상징 지향', '실용 지향'의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행 추구형(33.8%)', '전통 및 상징 추구형(28.1%)', '심미 추구형(18.9%)', '실용 추구형(19.2%)'으로 유형화되었다.
3. 공간사용성향은 '생활편이 중심', '격식 및 접객 중심', '가사 중심'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은 '개성 추구형(70.1%)', '편리 추구형(17.3%)', '격식 및 가사활동 추구형(12.5%)'으로 유형화되었다.
4. 주거생활양식은 '형식적 생활형(13.6%)', '가족화목 생활형(33.2%)', '적극적 건강생활형(24.4%)', '미온적 혼합생활형(4.2%)', '편리추구 생활형(9.9%)', '주거환경중시 생활형(14.8%)'으로 최종 유형화되었다.

가치·태도·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한 결과 얻은 결론은 주거생활양식의 하위영역으로 가정생활가치관, 주택·가구와 내구재 소비성향, 공간사용성향을 채택한 것은 유용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거생활양식의 6개 유형은 주거선택예측이나 주택평면개발시 적합도 평가에 판별이나 예측 변수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 지역을 서울과 신도시로 제한하여 유의표집을 하였고, 표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은 쪽으로 편포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양식을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점을 고려하여 주거생활양식의 확립과 주거문화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를 중심으로 -, 연세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2) 김미희 · 문희정.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7호. 1998: 11~19.
 - 3) 김미희 · 이유미. 주생활양식 유형과 공동주택 내부 · 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권 2호. 1998: 89~96.
 - 4) 김진애. 우리의 주거문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서울: 서울포럼. 1994.
 - 5) 백혜선 · 임미숙 · 박광재 · 김석경. 지역별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1호. 1998: 83~92.
 - 6) 새주택설계위원회. 21세기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서울: 서울포럼. 1994.
 - 7) 서정희. 가정학 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6.
 - 8) 송 북. 21세기 사회와 공동체 생활문화.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 미래주택 단지개발의 방향. 연세대학교 학술대회집. 1995: 9~22.
 - 9) 신소영. 도시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권 2호. 1997: 37~47.
 - 10) 신양선. 도시민의 주거생활양식과 공간결함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11) 심미영 · 고경필. 주생활양식이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택구매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1996: 341~351.
 - 12) 이영주 · 이영호.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선택 행동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6호. 1998: 47~56.
 - 13) 장재호 · 김상호 · 김수암.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세분화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10호. 1997: 13~20.
 - 14) 정충영 · 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1996.
 - 15) 허영숙 · 조성희. 집합주택계획을 위한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12호 통권 110호. 1997: 35~45.
 - 16) 홍두승 · 김미희. 도시 중산층의 생활양식: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9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88: 485~533.
 - 17) 홍형욱 · 이연복.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4권 4호. 1996: 103~117.
 - 18) 홍형욱. 가족공동체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거환경 대안.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4집. 1998: 171~194.
 - 19) Arias, E. G. ed.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Averbury. 1993.
 - 20) Feldman, S. D. & Thielbar, W. ed. *Lifestyles: Diversity in American society*, 2nd ed. Boston: Little Brown Co. 1975.
 - 21) Hanan, M. *Life-styled marketing*.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1972.
 - 22) Mitchell, A. *The nine American lifestyles*. Warner Books. 1983.
 - 23) Rapoport, A. *Housing form and cultur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9. 아모스 라포포트 · 이규복 역.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 24) Wentling, J. W. *Housing by lifestyle*. N.Y.: McGraw-hill, Inc. 1995.